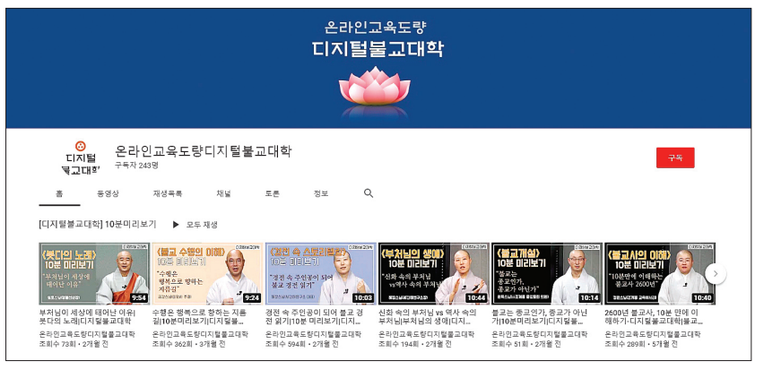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신도교육, 불교대학 변화

조계종 디지털대 등 온라인 교육 강화 눈길

디지털대 전용 스튜디오 완비
화계사, 유튜브 전문채널 개설
조계사 · 봉은사, 라이브 진행



조계종 디지털대학은 최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을 위해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온라인 강좌를 중심으로 한 불교대학 신도교육의 변화가 눈길을 끈다.

먼저 코로나 후 온라인 신도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폭 증가한 상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운영하는 조계종 공식 온라인 신도교육기관인 디지털불교대학의 집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불교대학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6월까지의 상반기 1601건에 비해 하반기 5803건으로 262% 증가했다. 올해 진행되는 신도기본교육과정 수강생 수도 2019년 245명에 비해 2021년 288명으로 약 2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신도전문교육과정 수강생은 2019년 75명에 비해 2021년 91명으로 25%가 확장됐다.

이런 관심 속에 불교대학들은 대면 방식의 기존 커리큘럼에 유튜브채널과 네이버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학사운영을 선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온라인 교육기관인 조계종 디지털대학은 최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 진행을 위해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스위처 시스템, 오디오믹서, 조명설비 등을 설치하고 쌍방향 소통 온라인 신도교육에 나선다. 매년 2차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전문포교사 과정 연수 또한 지난해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실시간 라이브로 이뤄졌고, 올해도 온라인 연수로 진행된다.

정규 커리큘럼의 경우 3월 8일까지 일반인 및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도전문교육과정과 포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포교사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특히 전문포교사과정에는 SNS 포교방법론과 같은 교과목도 포함됐다. (070)8680-9241

화계사 불교대학의 경우 지난해 진행하던 '화계사 불교대학TV'의 채널을 2개로 확대했다. 화계사불교대학은 신도교육과 병행하는 커리큘럼으로 1학년 기본반, 경전반 강의를 담당하는 1채널과 2학년, 대학원 강의를 진행하는 2채널로 나눠 문을 열었다.

3월 2일 개강하는 화계사 불교대학의 경우 1학년(대적광전), 2학년(제일선원), 대학원(제일선원), 경전반(대적광전) 등으로 1학기 수업이 진행되며 각각 불교개론부터 불교사상사, 법화경, 육조단경 등 과목이 개설된다. 강연에 참여 못하는 이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외에도 네이버 카페 '화계사 불교대학'과 네이버밴드 등을 활용해 강연영상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수강등록을 마쳐야 초대된다. (02)997-6469

구독자 3만여 명을 보유한 조계사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도 조계사 불교대학의 온라인 병행에 활용된다. 조계사 불교대학은 3월 10일 주간반이 개강하며, 3월 13일 토요반이 개강한다. 조계사 불교대학의 경우 유튜브채널에 불교대학 기본교육 맛보기 영상을 업로드한 상태다. 접수 또한 기존 교육국 대면접수 외에 홈페이지(edu.jogyesa.kr)를 통해 쉽게 가능하다.

봉은사의 경우 통합교육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봉은기초학당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봉은사는 이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교육과정을 연기한 바 있다. 3월 2일 개강하는 봉은기초학당(주말반 3월 6일)은 현장강의의 경우 책상 항균필름, 수강생 마스크 착용, 강사 유리칸막이 등으로 방역 속에 진행되며, 대면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네이버 밴드 내 라이브방송을 통해 온라인 수업 출석이 인정된다. 3월 19일 개강하는 봉은불교대학 또한 불교대학원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통해 강의를 듣기만 하면 출석이 인정되도록 배려했다. (02)3218-4900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기존 운영중인 '유튜브불교대학' 강좌 내용을 모아 교재로 쓸 수 있는 '유튜브불교대학 생활법문'도 책으로 펴냈다. 대관음사는 지난해 코로나로 불교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자 빠르게 '유튜브불교대학'을 개설한 바 있다. 약 1000여 편의 강좌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으며, 구독자 6만 6000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에는 함께 볼 수 있는 책까지 펴내게 된 것이다. (053)474-8228

이밖에 강남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 김해바라밀선원 불교대학, 홍법사 불교대학 등 많은 불교대학 들이 온라인 병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공생의 삶, 되새기는 한해 되길"

한마음선원, 2월 13일 '대행 선사 탄신 94주년 다례재'

본원다례재 현장, 대표자 참여
전국지원 및 신도 온라인 연결
대행 선사 공생 가르침 되새겨


한마음선원은 2월 13일 안양본원에서 대행 선사 탄신 94주년 다례재를 거행했다.

근현대 불교 포교의 새 장을 연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탄신 94주년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2월 13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탄신 94주년 다례재'를 봉행하며 스님이 전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내면의 정진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마음을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침에 따라 다례재에는 한마음선원 문도 스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음성공양 등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의 헌다와 헌화, 헌향으로 시작된 다례재는 각 지원 신도들을 대표하여 본원 신도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헌화하며 추모의 뜻을 더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다례재에서 상영된 법문 영상에서는 대행 선사 생전에 설한 생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공생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대행 선사는 영상에서 "자기를 끌고 온 근본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공법이고, 낮든 높든 모두 일체가 높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항상 더불어 같이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으로 큰스님 다례재를 모실 수 있어 감사하다"며 "큰스님 가르침대로 '나 자신이 세세생생 내려온 주인공이고 오늘도 주인공이고, 미래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고 미래에도 이 마음 도리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실천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정각사, 지역사회에 54년 자비나눔 '귀감'

설맞아 성북구 · 삼선동센터에 기부

은사 광우 스님 40년간 자비나눔
정목 스님 계승해 14년간 지속해


서울 정각사는 설을 맞아 성북구청과 삼선동 주민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서울 삼선동 정각사(주지 정목)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이 같은 자비나눔은 스승과 제자까지 장장 54년동안 세대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어서 귀감이 되고 있다.

정각사의 자비나눔은 정각사 창건주 故 광우 스님(2019년 원적) 때부터 시작됐다. 광우 스님은 당신의 생일인 매년 음력 12월 11일을 맞아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공양을 제공하고 선물과 보시금을 드려왔다. 광우 스님의 자비행은 40년 동안 이어졌고, 이는 제자인 정목 스님이 그대로 계승했다.

정각사 주지를 맡게 된 이래 정목 스님은 14년 동안 매년 설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연말에 지역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비롯해 떡국 떡, 김장김치 등을 제공해 왔다. 또한 사찰 형편이 닿는 대로 어버이날과 복날이면 식당을 예약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등의 공양을 올리기도 했다.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열리는 정기법회에 참여하는 신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600~700인분의 김밥을 넉넉하게 구입해 이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시해 왔다.

정목 스님은 "광우 스님께서는 '사찰은 지역 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매년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공양과 선물, 후원금을 전달하셨다"면서 "은사 스님의 이 같은 자비행을 제자인 제가 계승해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기반한 사찰은 김치 한 포기, 연탄 한 장을 나눠야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자비나눔은 사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태고종, 100년 역사 〈월간 불교〉 복간

십수년간 종단 내홍으로 혼란을 겪었던 태고종이 지난해 종단 안정화 · 정상화의 완전한 기틀을 확보하고, 올해부터는 종단 정체성 강화 및 위상 확립,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면모를 일신한다.

특히 1914년 창간된 〈월간 불교〉를 복간하고 '태고종앱' 개발 및 상용화, 제1회 한국불교 신춘문예 신설 등 한국불교 전통을 계승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활동을 본격화한다.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순천시, 조계종과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화합 차원에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2월 8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태고종은 올 3월 〈월간 불교〉를 재발간한다. 〈월간 불교〉는 1914년 권상로 스님에 의해 창간됐다가 1931년 한용운 스님이 이어받아 항일운동의 발판으로 삼았던 불교 전문 잡지다. 1970년 태고종과 조계종과 분리된 후 태고종이 지속적으로 발행해 오던 중,

호명 스님, 2월 8일 기자회견
올해 정체성 · 위상 강화 매진

종단이 혼란했던 2014년 이후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다 2018년 이후에는 발간이 중단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5월 4일 국가등록문화재 제782호로 지정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호명 스님은 "〈월간 불교〉가 가진 역사와 가치에도 그간 종단 혼란으로 제대로 발행이 되지 못했고 그 형태와 내용도 대단히 미흡해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재발간될 〈월간 불교〉는 한국불교 最古 역사를 지닌 잡지로서 한용운 스님의 서체와 옛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고 창간 취지와 목적, 전통을 계승하는 가운데, 과거의 위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태고종은 또 올 3월 중 '태고종앱'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선다. 태고종 앱은 전국 사찰과 종도, 신도들의 포교활성화와 사찰경영 편리화, 교육 및 신행생활 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단 홈페이지 기능은 물론 기본적인 종무행정의 기능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종단 위상 제고와 외연확장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올 11월 '제1회 한국불교 신춘문예'를 신설하고 불자 뿐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학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한편, 대국민봉사활동 및 나눔문화확산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대대적으로 봉행한다.

한편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종과의 법정대립에 대해서는 "소송보다는 대화와 화합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국불교를 위해 이로울 것으로 본다"고 의중을 밝혔다. 송지희 기자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19대 집행부 출범!!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교불련이 앞장 서겠습니다

제19대 집행부 (임기 : 2021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 고문 : 역대회장 ● 지도위원(30인) : 이황우(동국대), 황진수(한성대), 이인자(경기대), 조현춘(경북대), 박광서(서강대), 김인수(부산교육대), 강인수(수원대), 신준식(대구대), 강수균(대구대), 박영병(부경대), 강동균(동아대), 곽도영(동국대), 박학길(동아대), 오윤표(동아대), 차득근(동의대), 곽만연(동아대), 김대열(동국대), 송운석(단국대), 박차수(동의과학대), 정영철(순천대), 김선숙(동덕여대), 정태권(해양대), 김철진(경북전문대), 도태성(영진전문대), 김남경(경북대), 김보영(대구예술대), 이상희(대구폴리텍), 서보혁(경북대), 이광철(한양대), 전재목(대구폴리텍) ● 명예회장 : 김성규(영남대) ● 회장 : 송일호(동국대) ● 법인이사회(회장 포함 총50인) : ● 부회장(21인) : 박상진(동국대), 조정식(동국대), 황순일(동국대), 박명호(동국대), 장상목(동아대), 송윤미(강원대), 고대만(제주대), 이상훈(대전대), 조남호(교통대), 김경회(대구대), 안경식(부산대), 이규갑(연세대), 김환기(동국대), 성해준(동명대), 석길암(동국대 경주), 장호경(대구한의대), 김응철(중앙승가대), 이준일(대구보건대), 장재진(동명대), 최응천(동국대), 최용민(위덕대) ● 이사(28인) : 조윤오(동국대), 김대영(동국대), 이동식(경북대), 성희자(경북대), 전영준(제주대), 김현석(동국대), 강규영(동국대), 이영숙(동국대), 류정호(동국대), 변부형(대구한의대), 박수호(중앙승가대), 이동석(동국대 경주), 김재은(동국대), 남진숙(동국대), 김선희(동국대), 박진근(대전대), 김종혁(대전대), 홍선기(국회연수원), 이윤호(대구대), 성정석(동국대), 서영권(동국대), 홍성규(동국대), 황재현(동국대), 정덕스님(동국대), 전병훈(동국대), 이세연(동국대), 김연미(이화여대), 김중관(동국대) ● 감사 : 김형상(동국대), 김한철(영남대)

2021년 교불련 사업계획

◎ 한국교수불자대회(7월) ◎ 교수불자연합학회지(KCI등재지)발간(4월, 8월, 12월)
◎ 불교미래포럼(4월, 10월) ◎ 원로자문위원회(5월, 11월) ◎ 불교미술 및 서화전시회(9월) 외 다수